

한-몽골, EPA 통해 글로벌 진출 기대

대한상의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나라를 방문한 오희나 후렐수흐 몽골 총리를 초청해 몽골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16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오희나 후렐수흐 총리는 취임 이후 첫 순방지로 한국을 선택했다.

또한 농식품, 경공업, 도로교통, 환경, 관광 등 협력 가능 분야의 장관들도 대거 동행해 양국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오희나 후렐수흐 총리는 특별연설을 통해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을 강조하며 "지난 16년부터 논의가 진행돼 오고 있는 한-몽골 EPA를 통해 몽골은 동아시아와 태평양으로, 한국은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대한상의 측은 한-몽골 EPA 체결 시 양국간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에 따라 교역량 증



대한상공회의소는 방한한 오희나 후렐수흐(Khurelsukh Ukhnaa) 몽골 총리를 초청해 몽골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16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왼쪽 세번째)과 오희나 후렐수흐(Khurelsukh Ukhnaa) 몽골 총리(가운데)가 주요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가와 자원협력 확대가 기대된다고 했다.

포럼에는 몽골 측에서는 오희나 후렐수흐 총리를 비롯해 바타르자브 사와자브 몽골상의 회장, 족트바타르 담딩 외교부 장관 등 정부 주요인사와 대표 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김희용 동양물산 회장을 비롯해 두산중공업, LS산전, 대림산업 등 몽골 투자에 관심 있는 100여개 기업들의 대표자들을 비롯해 김준동 대한상의 부회장,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참석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m@metroseoul.co.kr



신한은행은 KBO와 함께 1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2018 KBO 리그 타이틀스폰서' 조인식을 진행했다. 사진은 신한은행 위성호 은행장(왼쪽)과 KBO 정운찬 총재. /신한은행

신한은행 2018 KBO리그 타이틀스폰

신한은행은 KBO와 1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2018 KBO 리그 타이틀스폰서' 조인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인식에서 신한은행과 KBO는 2018년 KBO리그의 공식 타이틀을 '2018 신한은행 MYCAR KBO 리그'로 확정하고 공식 엠블럼도 공개했다.

신한은행은 이번 타이틀스폰서 계약으로 오는 2020년까지 3년 간 KBO 리그의 공식 타이틀 사용 권리를 가지며, KBO 리그 및 신한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10개 구단과 협력해 다양한 마케팅과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서울시 '핸드허그 캠페인' 후원금 1.7억 기부

서울시는 '핸드허그 캠페인' 후원금 1억 7000만원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기부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8층 간담회장에서 '핸드허그 캠페인'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김인철 복지본부장과 굿위드어스 임통일 이사장, 애경산업 강영복 본부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효진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애경은 1360만 원 상당의 비타민, 샴푸 등의 물품도 기부했다.

'2017 핸드허그 캠페인'은 나눔·소통·생명·사랑·자원봉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 서로 한 손을 마주 잡고, 나머지 한쪽 손으로 각자 손가락 하트를 만드는 방식으로 서로에 대한 공감과 관심을 표현하는 릴레이 기부 캠페인이다. 시가 주최하고 굿위드어스가 주관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주)RBW, (주)에스원,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후원했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이번 캠페인은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다양한 형태의 기



부활동을 통해 나눔문화를 확산하고자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이범중 기자 joker@

오비맥주 카스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오비맥주 카스가 온라인 공익 광고를 통해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펼친다.

오비맥주는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카스의 '건전음주 캠페인' 영상을 제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광고 캠페인은 '부딪쳐라, 끝까지 Fresh하게!'라는 메시지를 주제로 신선한 카스와 함께 끝까지 즐겁고 책임 있는 술자리를 만들자는 취지로 기획했다. 소비자들이 평소 음주운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행동을 살펴보기 위해 몰래 카메라 형식으로 제작했다.



/박인용 기자

신점[神占] 운세 1월 17일 (음 12월 1일) www.healingunse.com 060-800-8877

 쥐 60년생 운이 좋지 않으나 자만해선 안됩니다. 72년생 아랫사람을 잘 다스려야 일이 잘 풀리기 마련입니다. 84년생 기다리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96년생 기운이 앞서니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말 54년생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을 수 있습니다. 66년생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 먼저 베풀세요. 78년생 지극 절제하지 말고 나중에 결정하세요. 90년생 새로운 변화와 시작이 필요합니다.
 소 61년생 지인에게 부탁하면 방법이 있습니다. 73년생 건강 관리가 가장 우선입니다. 85년생 일이 안 풀릴수록 중심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97년생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나를 먼저 살펴보세요.	 양 55년생 추진하던 일이 잘 풀립니다. 67년생 재물이 좋고 이득이 있으나 어디에 쓸까 고민입니다. 79년생 들어온 재물을 잘 보관하세요. 91년생 선택이 필요합니다. 좋은 방향은 북쪽입니다.
 호랑이 50년생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62년생 오늘은 어렵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74년생 언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86년생 뒷사람의 도움을 받아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원숭이 56년생 원만한 복이 있으니 기분이 좋습니다. 68년생 다투면 손해를 보니 참으세요. 80년생 운이 좋지는 않지만 큰 손해는 없습니다. 92년생 뒷분에게 칭찬이나 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끼 51년생 밀어 부치지 말고 차근차근 추진하세요. 63년생 변화보다는 현재에 대한 만족이 필요합니다. 75년생 어려움이 있지만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87년생 걱정 없이 무난한 하루입니다.	 닭 57년생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69년생 덕을 베풀면 쉽게 일이 풀립니다. 81년생 후배에게 잘하면 더욱 당신을 떠를 것입니다. 93년생 직접 행동보다는 주위의 도움을 받으세요.
 돼지 52년생 미리 준비하면 운이 계속 따릅니다. 64년생 지나친 모험만 피하면 좋은 운이 계속됩니다. 76년생 욕심을 버리고 주위를 먼저 챙기세요. 88년생 너무 민기만 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개 58년생 계획하던 일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70년생 겸손하게 대응하면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82년생 다른 일보다 본인에 충실하세요. 94년생 음식물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뱀 53년생 안 좋은 관계는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65년생 시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운이 따르는 하루입니다. 77년생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89년생 지금 하는 일이 별 이득이 없습니다.	 돼지 59년생 고집을 버리면 오히려 이득이 있습니다. 71년생 인연운이 좋으니 만남이 즐겁습니다. 83년생 자만심보다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95년생 가족이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x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전화운세상담 홍카페 10분 무료상담 이벤트!
 홍카페 접속 후 회원가입 시
 추천인 아이디에 METRO 입력하면 10분 무료상담!!
 타로, 연애, 심리 1:1 전화상담 홍카페
 www.hongcafe.com

2			3					1
	1		7		2			9
		4				3		
	7		5		1			4
1				9				8
	4		8		3			2
		1				8		
	5		3		8		1	
3	8		5		6			4

	3		6	1	5			8
4			2		9			5
		7	3			4	9	
	4	3					8	7
5					3			6
	1	6					2	5
		5	8		2	1		
8			7		1			9
	7			9				6

스도쿠 정답

6	1	9	6	5	1	8	7	9
6	1	7	8	7	9	4	5	9
5	8	9	7	2	1	6	7	7
2	2	1	9	8	5	7	6	6
8	9	5	7	6	7	2	9	1
9	6	7	1	2	5	9	2	8
2	8	9	5	1	6	7	9	2
9	6	7	2	8	1	4	5	9
1	5	7	7	9	6	8	2	2
8	9	5	9	6	7	2	2	1
6	2	9	1	5	7	7	9	8
2	7	1	2	9	8	5	6	9
9	5	2	8	7	6	9	1	2
9	6	7	1	2	5	9	2	5
1	2	8	9	2	5	9	7	6
2	1	6	7	8	9	1	2	9
5	9	6	7	2	1	8	7	9
7	8	2	5	1	9	6	9	2

문제 제공: **보너스**

김상희의四季

진정한 신앙인은 종교에 속지 않는다

선사시대 이후 역사시대를 통과하면서도 정신의 함양과 영성의 추구하고 발전은 서양에서는 기독교문화로 종결되는 문화사회적 특성을 이루고 있다. 기독교문화의 발상지인 서구에서는 과학의 발달과 함께 기독교에 대한 반성과 회의가 점점 커져 가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개신교인구가 전통 종교인 불교를 능가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기독교와 불교를 대립적 관계로 보는 것은 아니다. 다만 종교적인 진리와 의미를 외면하는 것은 참 종교가 아니라고 보고 있기에 물질문화를 숭상하는 모양새로 커가지만 하는 교회건물 대형교회의 세습과 등의 모습은 진정한 종교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과 청정함에는 반하는 것이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불교 역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성직자나 출가 승려들이 진정한 종교인으로서 구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일반 재가 신자들이 느끼는 실망감은 그 어디에 비할 바가 없을 것 같다. 석가모니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려 하자 시자인 아난다존자는 후계자를 지정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 그러나 부처님은 후계를 지명하지 않으셨다. 다만 거듭 말씀하시길 내가 지금껏 가르치고 펼친 법들이 스승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시면서 덧붙이시길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진리)을 등불로 삼아 방일하지 말며 수행에 매진할 것을 독려 하실 뿐이었다. 이것이 '자등명 법등명'(自燈明 法燈明)이라고 하는 유명한 문구다.

참된 수행의 길에 있어 스승의 도움이나 의지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으나 구도의 종착점은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이며, 도과에 이르는 수행과정은 이미 다 밝혀 놓았으니 누군가를 범람이라 지정하였을 경우 과생될 파벌과 분열을 미리 내어다 보신 이유가 아니었을까 하고 필자는 자못 짐작해본다. 그러셨음에도 이문구가 주는 또 하나의 커다란 의미는 석가모니부처님은 스스로를 내가 범람이니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다. 자신도 세상의 진리를 깨달아 수도 없이 반복해온 고통의 원인인 윤회를 벗어났으니 이러한 진리를 알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감춘 것 없이 잘 드러내었으니 여러 못 중생들이 이 길을 부지런히 닦아 해탈할 것을 당부하셨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았음에도 수행자들은 물 밑 듯이 부처님을 따라 승가를 이루었던 것이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